

조선 초·중기 양반부녀복식의 복요(服妖) 유행을 응용한 구체관절인형 고증의상 디자인 연구

최 해 율[†]

원광대학교 패션디자인산업전공/생활자원개발연구소

A Study on the Design for a Boll Jointed Doll's Costume with the Ladies' Vogue of *Bok-yo* in the Early-middle Joseon Dynasty

Hae-yool Choi[†]

Dept. of Fashion Design & Apparel Industry, Wonkwang University/Institute for better living, Wonkwang University
접수일(2009년 4월 24일), 수정일(1차 : 2009년 5월 25일, 완료일 : 2009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2009년 6월 23일)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costumes for ball jointed dolls under the theme of *Bok-yo*(服妖): *The Lady in Early-middle Joseon* with relic costumes as a reference. The *Bok-yo* style was spread universally for Joseon women in the 15th-16th centuries, but it is an uncommon theme in the area of media and traditional costume for dolls. *Bok-yo* (curious outfit), consisted of a Dang-jeogori with a golden brocade in the front bottom, manlike Jang-ot, wide Chima, and Jang-ot was dressed between Chima and the Dang-jeogori. To make correct patterns and approvals for idle bodies of female ball-jointed dolls, darts are added in the front vertical line and center back of the golden brocade Dan-jeogori for Joseon ladies. The pattern of the golden brocade Chima is made as a trapezoid shape for the thin waist of a doll, and the length of a deep-greened silk gauze The Jang-ot increased because of the length of the doll's legs. In addition, the kinds of investigated accessories, hair, traditional underwear for dolls are limited. Suggested is a closer cooperation between the investigated costume designers, doll companies, and accessory makers for the future market of ball jointed dolls.

key words: Ball jointed doll, Investigated costume, *Bok-yo*, Jang-ot, Pattern; 구체관절인형, 고증의상, 복요, 장옷, 패턴

I. 서 론

본 연구는 조선 초·중기의 중요한 여인복식 유행 현상으로서 장옷(長衣)을 저고리와 치마(衣裳) 밑에 받쳐입던 복요(服妖) 유행을 응용하여, 학술적 가치를 중시한 구체관절인형용 고증의상 디자인을 연구하고 호

과적인 인형 의상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상세한 고증 자료 및 시제품과 기본 패턴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 초·중기에 유행한 복요 차림은 『세조실록』의 기록을 시작으로 하여, 광해군 대까지 15-16세기 조선 양반가 복식유물로도 출토되었다. 이는 조선 전반기 복식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현상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를 응용하여 효과적인 문화상품을 제작한 예는 아직 미비하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 구체관절인형 의상 시장을 들 수 있다. 구체관절인형은 각 부분이

[†]Corresponding author

E-mail: jeongch@wku.ac.kr

본 논문은 2009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국내 저명학술지 논문게재료 지원사업에 의해서 수행됨.

볼(ball) 형태의 관절구로 연결된 인형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전문 원형사에 의해 무발포 폴리우레탄 수지로 제작되고 헤드(head), 가슴, 허리, 팔과 손, 다리와 발로 나뉘며, 각 부분은 근육과 힘줄을 대체하는 텐션(tension)으로 연결된 것이 특징이다. 약 30-60만원 가량의 고가 취미 제품이지만 매우 다양한 포즈가 가능하며, <그림 1>처럼 체형은 비교적 가늘지만 일반인형에 비해 세부 형태가 섬세하고 인체와 더 유사하여 인체용 의상을 축소하여 입혔을 때의 위화감이 덜하다. 또한 가발과 안구 교체도 비교적 쉬워서 오너들이 자신의 생각에 맞는 여러 가지 포즈와 주제를 연출해 다양하게 인형을 꾸밀 수 있기 때문에, 구체관절인형 시장은 고급 완구 시장으로서 꾸준히 저변을 넓혀나가고 있다.

이러한 구체관절인형을 위한 의상 시장 역시 점차 중요시되고 있으며, 고전의상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커스텀하우스(Customhouse)의 주몽과 소서노(“주몽과 소서노예요”, 2006), 지그마리(Jigamaree)의 대장금(“Dae Jang Geum(大長今)”, 2006), 주방실인형한복(Dollhanbok)의 선화공주(“구체관절 테마한복”, 2006)와 예복차림의 사대부 부인(“구체관절 예복”, 2006), 돌모아(Dollmore)의 한국의 황후(The Empress Of Corea)(“Model doll”, 2007)를 비롯해 기녀 및 <그림 2>의 궁중고전의상과 오리엔탈(Oriental) 테마의 제품들도 여러 회사에서 제작되었고 소비자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제품들은 고증보다는 미감과 캐릭터의 특징이 강조된 영상매체 캐릭터 의상 및 접하기 쉬운 자료 위주로 제작된 조선 중·후기의 고증복식 위주로 출시되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역사적 문화 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구체관절인형 의상 제품으로 제시되지 않은 ‘복요 현상’과 관련된 양반가 복식유물을 응용하여 학술성을 강조한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고증과 미적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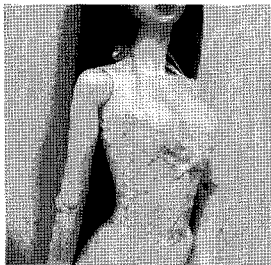
<그림 2> 궁중고전의상 제품 예

자료출처: SD한복-정한. (2007). 돌모아(Dollmore). 자료검색일 2008. 10. 20, 자료출처 <http://www.dollmore.com/shop/shopdetail.html?brandcode=095012000042&search=&sort=order>

치를 동시에 추구한 시제품을 제작하고 완제품을 위한 사전 단계 자료 및 개선점을 제시하여, 한국복식문화에 대한 인형 오너들의 지식을 더욱 넓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제품들은 한정판으로 제작되거나 장신구를 모두 갖춘 풀 세트로 출시되어 선택의 폭이 좁고 가격대가 매우 높아지는 단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의 시제품은 <복요: 조선 초 중기 귀부인(Bok-yo style: The Lady in Early middle Joseon)>이라는 테마 하에 저고리, 치마, 장옷의 세가지 아이템으로 간단하게 구성하여, 오너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고문헌과 15-16세기 양반가의 출토유물 및 조선 초·중기의 복요 현상을 언급한 권영숙, 이주영(1995), 이은주(2000), 김연자(2005), 최경희(2006)의 연구, 복요 유물은 아니지만 청주 한씨의 유물로 인체에 복요 차림을 재현한 한광순(2006)의 연구, 구체관절인형용 고구려 복식 및 인형 소비자 현황을 다룬 권수현, 강순제(2008)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아울러 구체관절인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전문 사이트의 예를 보면, 보크스코리아(Volkskorea), 루츠(Luts), 돌모아(Dollmore), 리케월드(Leekeworld), 드림오브돌(Dream of doll), 커스텀하우스(Customhouse), 주방실인형한복(Dollhanbok) 등을 들 수 있다. 구체관절인형 원형 및 의상 패턴 제작과정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상품용인 일부분을 제외하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구체관절인형 포털사이트 중 인형과 의상의 상품구색이 다양하고 상품평이 활발하게 업데이트



<그림 1> 68cm급의 여성형 구체관절인형(Model doll)의 바디(Model doll F 타입(Dollmore), 소장 & Photo: 최해울)

되는 돌모아(Dollmore), 루츠(Luts), 드림오브돌(Dream of doll)사의 사이트에 게시된 인형과 의상 카테고리 및 소비자 평가를 중점 관찰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제품의 활용도를 위해서는 대부분 인체에 맞게 제작된 시판 직물의 문양 크기와 태, 인기 인형 모델의 외모와 전통의상의 조화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의 전문 사이트의 카테고리 중 성인 체형의 인형을 다루는 돌모아의 모델 돌(Model doll), 루츠의 시니어 텔프, 드림오브돌의 D.O.T 카테고리에서 선호도가 높은 인형들을 검색한 후, 뚜렷한 이목구비와 함께 동양적인 색상을 가진 모델이 선호도가 높고 전통의상과도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서양의 외모를 동시에 갖춘 68cm급의 대형 여성 모델 돌을 선택하였다. 또한 15-16세기의 특이한 유행을 보여주는 드레스 돌(dress doll)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복요 차림으로 수습된 유물들 중 복요의 핵심인 장옷, 저고리, 치마를 중심으로 시대 특성이 강한 의복들을 참고유물로 삼았다. 아울러 고증 제작과정을 확실히 나타내기 위한 기본 패턴과 시제품을 제시하도록 한다.

II. 조선 초·중기 복요(服妖)의 유행과 그 의미

15-16세기의 복요 유행은 의복 착용자의 성별과 의상의 착장 방법에 관련된 유행이었다. 기록으로는 『세조실록』 세조 2년 정유에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양성지(梁誠之)가 상소한 내용 중에서 다음과 같이 처음 언급되었다.

대개 의상(衣裳)의 제도는 남녀(男女)와 귀천(貴賤)을 분별하려는 소이(所以)이니... 이제 나라 안의 여자들이 장의(長衣) 입기를 즐겨 남자와 같이 하나, 장의를 의상(衣裳)의 사이에 입어 3층(層)을 이루고 서로 분따서 온나라가 모두 그러하니, 의심컨대 이것은 곧 사문(史文)에 이른바 ‘복요(服妖)’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가 남복(男服)을 입는 것도 또한 어찌 경사로운 징조라 하겠습니까?(국역 조선왕조실록, 2004)

세조 2년(1456년)에 이미 여인들이 의상 사이에 장옷을 끼입는 것은 나라 전체의 유행이 되어 있었고(최해울, 2008), 권영숙, 이주영(1995) 및 이은주(2000a)의 연구에 의하면 광해군 대까지 생존한 장기 정씨(1565-1614년) 묘와 파평 윤씨(1558-1589년) 묘의 출토유물에서도 저고리 속에 장옷이 끼워진 채로 발견된 예가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보면 조선 초·중기의 복요 현상은 위와 같은 유학자들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고 15세기에서 16세기 말엽까지 명맥을 이어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복요(服妖)’라고 불렀던 근거는 장옷의 특이한 착용 방법 및 여성이 남성의 옷차림을 모방하는 앤드로지너스 현상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장옷은 남자 옷에서 유래되어 본래는 밖에 입었던 옷으로 여겨지는데, 장옷을 중심으로 한 조선 초·중기의 복요는 양반가 부녀복식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모든 여인들의 의복 유행이었다.

그러나 조선 초·중기에 확실히 존재한 유행 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요가 영상매체나 미디어에서 적절하게 활용된 예는 아직 찾기 어렵다. 권수현, 강순제(2008)의 연구에 의하면 구체관절인형 오너들이 가장 입히고 싶은 한복은 고증한복을 포함한 전통한복이었고 다음이 영상매체용 캐릭터 한복으로 나타났는데, 이중에서도 조선 초·중기를 다룬 고증의상 제품은 상대적으로 적어 고증한복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디자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복요는 세조 대에 여러 양반남성들과의 스캔들로 유명했던 초요경, 성종 대의 기녀 어울운동과 중종 대의 기녀 황진이, 의녀 대장금과 그 주변인물의 복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아이টে이며, 구체관절인형 전통의상 디자인 소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2차적 복식 상품자료로도 희귀성과 학술적인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III. 복요 고증 및 구체관절인형 의상 제작과정

복요에 대한 기록과 관련 유물은 남아 있으나, 복요 차림의 인물이 묘사된 조선 전반기의 회화자료는 현재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유물의 형태와 실루엣을 고려할 때 저고리, 장옷, 치마를 겹쳐입는다면 상당히 풍부하고 직선적인 실루엣이 연출될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묘주의 신장을 보면 장기 정씨는 약 160cm(이은주, 2000a), 평산 신씨는 약 150cm(정미경, 2005), 그리고 본 연구에서 다룬 참고유물의 주인인 파평 윤씨의 신장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비슷한 시기의 또다른 인물로서 1566년 경 20대 중반에 출산 도중 졸한 파주시 파평 윤씨 미라의 신장은 154cm 가량(김한경, 2003)이었으며, 이로 미루어 보면 당시의 일반적인 여성 신장은 대략 155cm 전후로, 품이 넓은 출토의복을 착용하면 상당히 풍성한 실루엣이 연출될 신체조건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의상의 종류가 다양한 편인 돌모아(Dollmore)

의 인형 의상(“의상(Doll clothes)”, 2002), 루츠(Luts)의 인형 의상(“의상”, 2003) 드림오브돌(Dream of doll)의 인형용 드레스(“DRESS”, 2003) 카테고리에 출시된 제품들을 참조한 결과, 현재 출시된 의상제품들은 동양과 서양 의상 모두 다소 슬림하고 하체가 길어 보이는 라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본 연구의 모델 들을 비롯해 위의 사이트들에서 인기도가 높은 60cm 전후의 성인 타입 인형들의 외모와 체형은 대부분 뚜렷한 이목구비에 신체볼륨과 긴 신장을 중시한 퓨전형 스타일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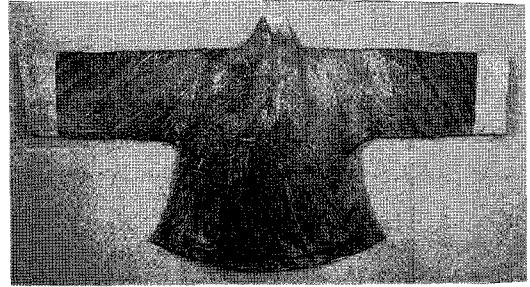
실제로 신장을 155cm로 잡고 폭이 넓은 유물 사이즈 비율로 축소한 1차 저고리 가봉 결과, 당시 여성에 비해 가늘고 길며 볼륨이 있는 모델 들의 체형으로 인해 뒷길과 어깨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들뜨고 예기치 못한 목깃부분이 부풀어, 미적 가치가 낮아지고 현재의 제품 트렌드와 크게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복요 시제품 디자인은 상품성을 고려해 이미 여러 오너들이 소유하고 있는 인기 인형의 외모와 신체조건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착용자의 신장을 약간 늘려 160cm로 설정한 후 인형의 신장 68cm에 맞추어 160:68의 비율로 축소하고, 지나치게 들뜨는 곳은 10% 이내로 치수를 조정하여 다소 슬림하면서도 볼륨이 있는 라인이 형성되도록 제작하기로 한다.

1. 저고리의 고증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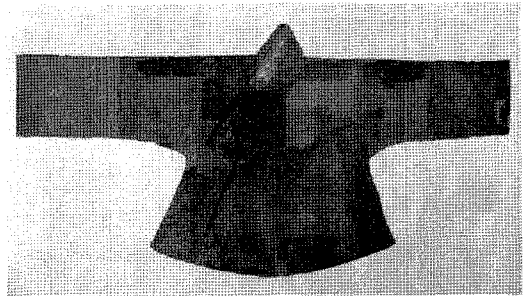
조선 초기 저고리는 심연옥(2006)의 연구에 의하면 세조 대의 월정사 불복장 유물로 백색과 쪽색 주(紬)와 청색 문단으로 된 직배래 목판깃의 넓은 명주회장저고리가 있지만, 복요로 입혀진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장옷이 끼워진 채로 발견된 유물은 <그림 3>의 장기 정씨 저고리 및 파평 윤씨의 저고리로서, 겨드랑이까지 트여져 장옷을 겹쳐입기 쉬운 구조이고 직배래와 내어달린 목판깃이 부착되어 조선 초·중기 저고리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이은주(2000a)와 김연자(2005)의 연구에서 이 스타일은 당의(唐衣)의 전신인 ‘당저고리’류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인형 의상 특유의 화사한 미감과 시대 특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시제품 저고리는 <그림 4>의 평산 신씨의 금선단 당저고리 형태를 참고로 제작되었다.

16세기 말의 인물로 추정되는 평산 신씨(안태현, 2005)의 무덤에서는 회장저고리와 당저고리 사이에서 저포 홀장옷의 파편이 발견되었으나, 홀장옷의 소매가 발



<그림 3> 장옷이 끼워졌던 장기 정씨 저고리
 자료출처: 이은주. (2000b). 장기 정씨 묘 출토유물. 안동대학교 박물관 (편), 안동대학교 박물관 총서 15, 포항 내단리 장기 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 131.



<그림 4> 평산 신씨의 금선단 당저고리
 자료출처: 정미경, 서수영. (2005). 평산 신씨 묘 출토복식. 화보, 문경세계박물관 (편), 금선단 치마 입고 어릴 다녀 오셨을까. p. 22.

견되지 않아 확실히 복요상태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김연자, 2005). 그러나 장옷이 끼워져 있던 장기 정씨의 저고리와 평산 신씨의 당저고리 형태는 거의 같고, 옆트임이 겨드랑이까지 터진 점도 유사하다. 또한 도련에도 금선단을 넣은 당저고리는 조선 전반기에만 출토되고 있으므로(김연자, 2005), 시대 특성과 복요를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 디자인 참고유물로 선택하였다.

2차 가봉을 거친 결과, 허리가 가늘고 가슴과脇이 풍만하며 자세에 따라 여유분이 달라지는 인형의 특징에 의해 다시 앞도련이 들려올라가고 뒤허리 부분에서 필요없는 여유분이 여전히 남은 반면 지나치게 폭이 가늘게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폭을 늘리고 앞섶선과 뒤허리 중심선에 약간의 다야트를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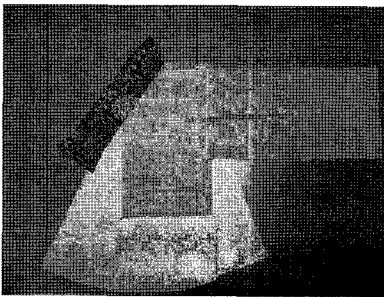
평산 신씨의 당저고리는 직물이 탈색되어 본래의 색상을 알기 어렵다. 당의의 전신일 가능성을 고려하면 <그림 5>처럼 바당과 도련의 금선단이 서로 같은

색상이었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금선단이 장식 효과를 위한 것임을 우선시하여 서로 다른 색상으로 설정하였다. 본래의 저고리는 소매 끝동까지 명주로 되어 있으나, 소매의 다른 폭들의 너비는 비슷하고 끝동 부분만 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물의 부족분을 이은 것으로 생각되어 미감을 위해 금선단으로 약간의 변형을 가했다. <그림 6>은 저고리 시제품의 중간과정이며, 동정과 고름을 더해 완성된 모습은 전신착장 상태의 모습인 <그림 21>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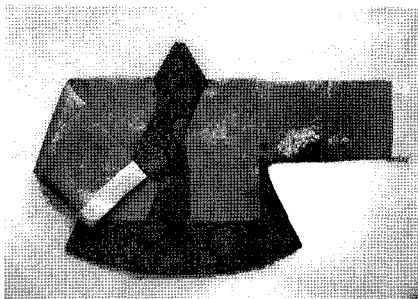
2. 치마의 고증 제작

치마는 전체가 금선단으로 되어 호사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림 7>의 평산 신씨의 금선단 흘치마와, 좀더 폭이 좁아 보행에 편리한 모양인 <그림 8>의 장기 정씨의 흘치마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평산 신씨의 금선단 흘치마는 오른쪽으로 여며 입을 치마이며 땅에 끌리는 길이인데, 9폭째에 작은 직물을 여러 개 이은 자국이 있어 이 부분이 안자락으로 추정되며 솔기는 가름솔로 되어 있다(정미경, 2005).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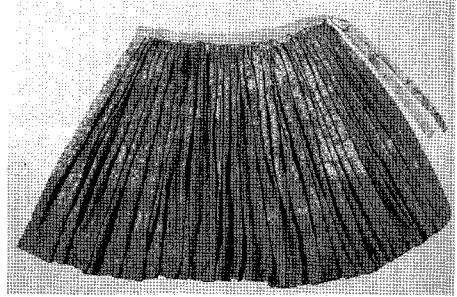
<그림 5> 바탕과 도련 금선단이 같은 색상인 경우의 배치(Photo: 최해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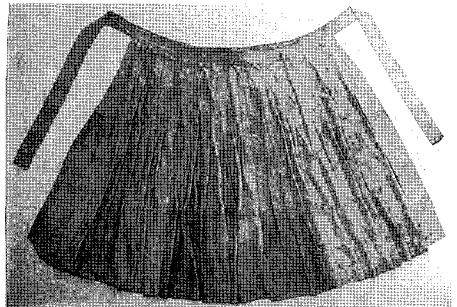
<그림 6> 보색대비를 중시한 인형용 금선단 당저고리 시제품 중간과정(고증디자인 & 제작: 최해울)

신타기 어려우나, 안자락 부분은 귀한 금선단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남은 부분을 이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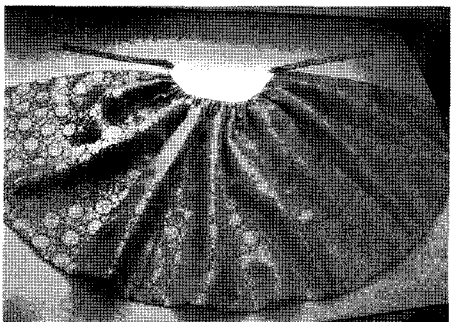
<그림 9>은 완성된 치마 시제품이다. 시제품은 직물 부족분을 커버하기 위한 듯한 이음선을 생략한 후, 실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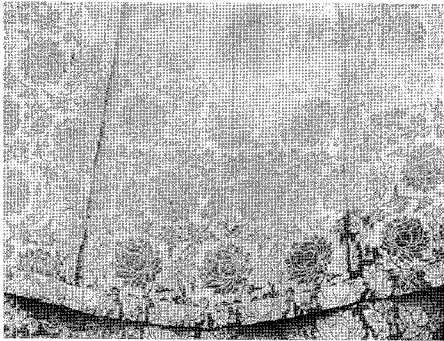
<그림 7> 평산 신씨의 금선단 흘치마
자료출처: 정미경, 서수영. (2005), 평산 신씨 묘 출토복식-화보. 문경새재박물관 (편), 금선단 치마 입고 어딜 다녀오셨을까. p. 30.



<그림 8> 장기 정씨의 화문단 흘치마
자료출처: 이은주. (2000b), 장기 정씨 묘 출토유물. 안동대학교 박물관 (편), 안동대학교박물관 총서 15, 포항 내탄리 장기 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 139.



<그림 9> 인형 사이즈의 치마 시제품 (고증디자인 & 제작: 최해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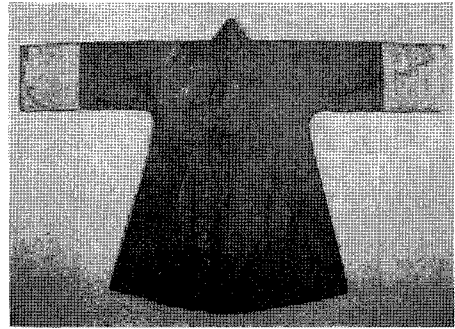
<그림 10> 치마 시제품의 가름술과 밑단
(고증디자인 & 제작: 최해울)

성을 고려하여 밑단을 축소하여 9폭으로 제작하고 <그림 10>처럼 가름술에 풀을 먹여 처리하였다. 그러나 성인 모델의 체형을 가진 인형의 허리둘레가 18cm 가량으로서 신장 160cm의 인체로 환산했을 때 50cm 미만이어서, 출토유물처럼 폭을 모두 써서 재단하면 속주름 위에 겹주름이 계속 겹쳐져 치마 허리부분이 매우 두터워지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유물과 달리 사다리꼴로 재단하고 폭을 다소 줄여 허리말기에 연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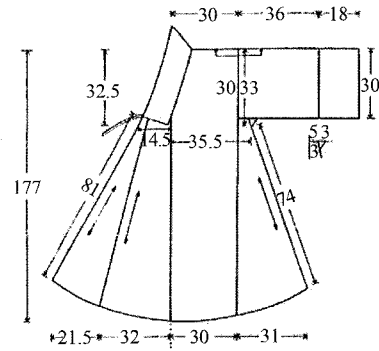
3. 장옷(長衣)의 고증 제작

복요의 핵심 요소인 ‘저고리 속에 겹쳐진 장옷’들은 파평 윤씨 묘와 장기 정씨 묘 등에서 수습되었다. 권영숙, 이주영(1995)과 이은주(2000a)의 연구를 참고하면 본래 이러한 장옷들은 <그림 11>처럼 겹장옷이며 어느 정도의 두께와 부피감을 갖고 있으나, 현재 인형 의상으로는 슬림한 실루엣이 선호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김연자(2005)에 의하면 복요로 확신할 수는 없으나 평산 신씨 유물에서도 저고리 밑에 끼워진 저포 홀장옷 파편이 발견된 바가 있어, 시제품에는 <그림 12>의 파평 윤씨 묘에서 발견된 홀장옷의 크기와 디테일을 함께 응용하였다.

권영숙, 이주영(1995)에 의하면, 16세기의 파평 윤씨(1558-1589년)와 전주 하씨(1580-1645년)의 유물 중에서 발견된 홀장옷은 들어달린 목판깃과 사선여밈을 가졌고 옆트임은 없으며, 겹섶이 이중섶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편 김덕령 장군(1567-1596년) 묘에서 발견된 무명 솜누비 장옷은 착용자의 성별이 확실치 않으나 겹섶과 안섶이 모두 이중섶이고 들어



<그림 11> 장기 정씨의 장옷
자료출처: 이은주. (2000b). 장기 정씨 묘 출토유물. 안동대학교박물관 (편), 안동대학교박물관 총서 15, 포항 내 단리 장기 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 132.



<그림 12> 파평 윤씨의 홀장옷
자료출처: 권영숙, 이주영. (1995). 조선 초 · 중기 여자 장의(長衣) 제도-임란전후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가정대학연구보고, 21, p. 158.

달린 목판깃에는 동정이 달려 있다(이은주, 2006). 이들 장옷에 쓰인 직물의 폭은 약 33cm로, 이중섶은 좁은 직물로 넓은 앞도련을 만들기 위한 부득이한 디테일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3>-<그림 14>의 시제품에서는 이 특징이 누락되어, 최종 기본 패턴에서 수정 과정을 거쳤다.

또한 복요에 해당되는 장옷 유물들의 폭과 소매넓이는 저고리와 같거나 오히려 다소 넓은데, 남자의 옷처럼 폭이 넓고 직선적인 실루엣을 중시한 당시의 유행 현상 때문으로 생각되며 장옷을 때때로 겹에 입었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는 없다.

『중종실록』 중종 17년 을유의 기록에는 “...서인 여자가 백저포로 장의와 치마 만드는 것이나 질게 물들인 아청색(鴉青色)으로 치마 만드는 것을 금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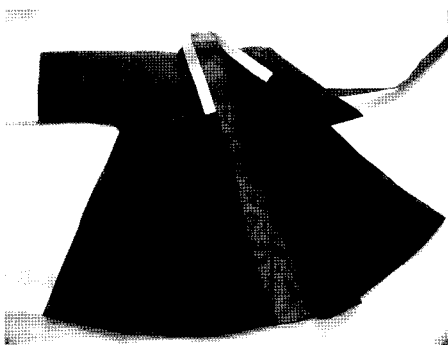
(국역 조선왕조실록, 2004)라는 대목이 나타나는데, 이에 따르면 조선 초·중기 양반가의 귀부녀 장옷 재료로는 백저포가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종실록』 중종 23년 정사에서는 “심지어 겉옷도 지나치게 가는 것으로 만들어 속옷이 밖으로 비쳐 보이게 하는데,.... 또 질게 염색한 초록(草綠)을 좋아하므로, 발에 곡식 대신 쪽을 많이 심어 지나치게 질게 하기를 힘쓴다고 한다....”(국역 조선왕조실록, 2004)라고 하며, 『광해군일기』 1년 기유의 기록에서는 “두 달이 지나자 그 숙모가 감색(紺色)의 장옷을 만들어주고는 계속 머물러 있게 하였을 때....”(국역 조선왕조실록, 2004)라는 대목도 드러나, 해당시기에 짙은 초록색 염색, 얇은 재질의 겉옷, 감색의 장옷 등도 착용되었거나 유행했음을 짐작케 한다.

백저포로 제작할 경우 구체관절인형 의상 특유의 화사한 미감을 중시한 다른 시제품과의 부조화가 우려되어, 시제품 장옷은 <그림 13>-<그림 14>과 같이



<그림 13> 시제품 장옷의 모습
(고증 및 패턴 제작: 최해율)



<그림 14> 시제품 장옷의 펼친 모양
(고증 및 패턴 제작: 최해율)

『중종실록』 23년과 『광해군일기』 1년의 기록을 참조하여 얇은 소재의 암록색 장옷이라는 설정으로 제작하고, 오염을 막기 위한 동정을 부착하였다. 소매와 길의 나비는 저고리 안에 겹쳐 입어야 하는 것을 감안해 앞서 제작한 인형용 당저고리의 사이즈를 따랐다.

IV. <복요: 조선 초·중기 귀부인>의 전신착장 상태 연출

패턴과 시제품 제작 후 전신 착장 상태를 연출하는 단계에서는, 각 부분이 자유롭게 움직여 팔다리가 예기치 못한 각도로 꺾어지거나 긴 신장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대형 구체관절인형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고리와 장옷의 실루엣이 비교적 풍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먼저 허리 쪽을 돌 스탠드(doll stand)로 고정한 후 그 위에 의상을 착용시켰으며, 평면구성으로 제작된 상의의 특성을 따라 <그림 15>와 같이 팔을 T자형으로 벌려 의상을 입힌 후 포즈를 잡아주었다.

이 시기의 장신구와 소품의 경우, 15세기의 문인 서거정(1420-1488년)의 『사가집』 2권 중 미인도(美人圖)를 보면 다소 비유적인 내용이기도 하나 “머리 위의 보배 비녀엔 금화를 새겨 단장하고, 허리 사이엔 쌍패와 소합향을 찻구나(頭上寶釵金鈿粧 腰間雙佩蘇合香)”(서거정, 1488/2004)라고 하여 금비녀, 패옥 노리개, 향주머니 등이 언급되었다. 또한 『중종실록』 중종 25년 갑신의 기록에는 부인들이 사치스러운 금선혜(金線鞋)를 신는 것에 대한 우려(국역 조선왕조실록, 2004)도 드러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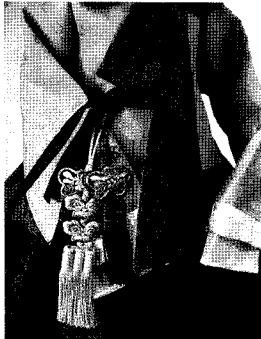
그러나 구체관절인형의 사이즈가 70cm 가량부터



<그림 15> T자형 착장 방식(가형/인형 모델: dollmore, 의상 제작 및 착장 연출: 최해율)

20cm 전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에 비하여 현재 출시된 고전의상용 장신구과 속곳, 신발의 사이즈와 종류는 매우 한정되어 있거나 주문생산 방식으로 가격이 높아, 자칫 어색한 일습이 되기 쉬워 업계의 관심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시판 제품인 인형용 언더웨어 및 아동용 딸감과 원석 비즈를 사용했으며, 노리개는 <그림 16>처럼 핸드폰 장식 매듭노리개로 대체하여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외양을 유사하게 갖추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진신착장 연출과정에서 고증 가चे 및 소품과 관련된 개선점 역시 발견되었다. 조선 초 · 중기 부인의 머리 모양은 1519년 안동 관아의 경로연회 장면인 농암종가 소장품으로 1519년 안동 관아의 경로연회 장면을 묘사한(이정섭, 2002) <기묘계추화산양로연도>(한국국학진흥원(편), 2002) 및 1550년경과 1567년경의 관리들의 사적인 연회장면인 <호조낭관계회도>(1550)와 <회경루방회도>(1567)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림 16> 핸드폰용 매듭장식을 응용한 삼작노리개 (매듭장식: 신라자수/색동저고리, 연출: 최해울)



<그림 17> 농암 종가 소장 <기묘계추화산양로연도>에 묘사된 주빈 여인들의 머리 모양
자료출처: 한국국학진흥원 (편), (2002), *선비, 그 몇과 삶의 세계*, p. 31.

<그림 17>처럼 머리 위에 가चे를 올리고 나머지 머리는 목덜미에서 느슨하게 동글린 수계(垂) 형태로 조선 후기의 머리와는 다소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똑같이 연출할 만한 인형용 가चे 단품은 아직 출시된 예가 없으며, 일부 모(毛)헤어 가발을 제외한 일반적인 인형 가발의 태는 인간의 모발과 달리 고정성이 적어 복잡한 형태를 연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가발 제작사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문제이며, 본 연구에서는 불가피하게 시판 제품 중 최대한 형태가 유사한 모델 돌 가चे(“가발(Doll wig)”, 2002)를 구입하여 인형의 가발과 땅아, 제시된 회화자료를 참고하여 다음처럼 수정 연출하였다.

<그림 18>은 가चे version 1로서 땅은 머리를 뒤에서 동글린 전통적인 형태의 좌측의 부인 머리형을, <그림 19>은 가चे version 2로서 양갈래로 나뉜 것처럼 묘사된 정면의 부인 머리형을 연출한 예이다. 아울러



<그림 18> 짙은 안구 및 가चे version 1을 착용한 모습 (가चे/인형: dollmore, 칠보잡: 가배공예, 가चे 연출: 최해울)



<그림 19> 옅은 안구 및 가че version 2를 착용한 모습 (가че/인형: dollmore, 딸감: 가배공예, 가че 연출: 최해울)

<표 1> 구체관절인형용 <복요: 조선 초·중기 귀부인> 고종의상 디자인 정리표(축소비율 160:68)

아이템	형 태	참고유물	재 료	디자인 특징
저고리	금선단 도련, 내어달린 목관깃, 트임이 긴 당저고리	평산 신씨 묘 출토유물 장기 정씨 묘 출토유물	명주, 연화문 금선단	이음선에 다아트 추가, 보색대비 이용
장 옷	홀장옷, 이중걸섶, 들어달린 목관깃, 한삼과 동정 부착	장기 정씨 묘 출토유물 파평 윤씨 묘 출토유물	명주, 암록색 화문사	곱솔바느질, 겉과 안에 모두 착용 가능
치 마	금선단 흠치마, 9폭	평산 신씨 묘 출토유물 장기 정씨 묘 출토유물	명주, 연화문 금선단	사다리꼴 재단, 가름솔 처리

안구의 색상에 따라 인형의 외모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되도록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림 18>-<그림 19>처럼 동양적인 질은 안구와 퓨전 이미지의 열은 안구를 번갈아 착용시켜 연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친 <복요: 조선 초·중기 귀부인(Bokyo: The Lady in Early middle Joseon)>의 기본 전신 착장 모습과 디자인 요소 정리표는 <그림 21> 및 <표 1>과 같으며, 기본 전신착장 모습의 헤어스타일은 전통적인 모양인 가चे version 1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20>은 가चे 수정 연출 전에 포즈를 달리해 본 모습으로서 구체관절인형의 자유로운 포즈 예를 제시하기 위한 그림이다. 시제품은 치마, 장옷, 당저고리 세트 또는 단품으로 하고, 기타의 부속물은 풀 세트에서 제외하여 소비자의 다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제품은 출토유물의 사이즈와 형태를 되도록 따랐으나 신장이 길고 몸이 가늘면서도 볼륨이 있는 구체관절인형 모델의 신체 특징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체형의 인형을 소유한 오너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길이와 폭만 필요에 따라 10% 가량 가감하여 제작되었다.

시제품을 관찰한 결과 당저고리의 명주 태는 비교적 만족스러웠으나 천연염색 특유의 물빠짐 현상이 다소 나타났고, 두터운 금직단으로 인해 화사함과 시대적 특징이 가미되었지만 치마 주름이 예상보다 부드럽게 잡히지 않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구성 면에서는 볼륨있는 인형의 체형에 맞추기 위해 약간의 치수 가감 및 서양 패턴 요소가 가미되었고, 인형의 다리가 인체보다 길어 시제품 저고리와 장옷의 길이가 상당히 짧아졌기 때문에 이를 패턴에서 수정하였다. 장옷 깃과의 겹침 현상을 피하기 위해 저고리 깃나비를 넓혔으나 인형의 목 길이에 비해 지나치게 넓어져 다시 깃나비를 줄여 수정했으며, 일반 오너들이 편리하게 입힐 수 있도록 깃의 겹침 부분에 스냅을 추가했다. 또한 저고리 등솔 윗부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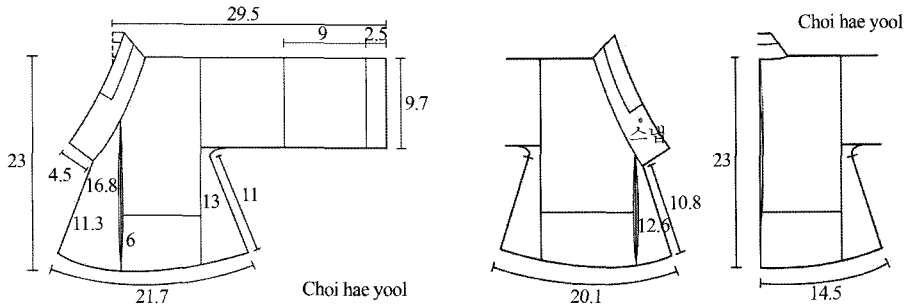
<그림 20> 가चे 수정 연출 전 포즈를 변형한 <복요: 조선 초·중기 귀부인>의 착장 모습(구체관절인형 제작사: dollmore, 의상 고종 및 제작: 최해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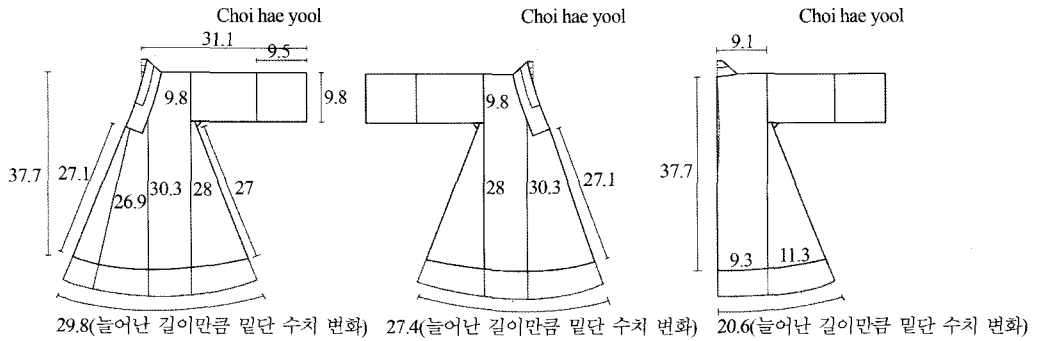
<그림 21> <복요: 조선 초·중기 귀부인>의 기본 전신 착장 모습(구체관절인형 제작사: dollmore, 의상 고종 및 제작: 최해울)

여전히 남아 다아트 길이를 늘려 잡았으며, 홀장옷의 걸섶을 이중섶으로 고쳐 고중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려했다.

고중에 맞는 장신구, 속곳, 가चे 등의 시판 제품이



<그림 22> <복요: 조선 초·중기 귀부인>의 당저고리 패턴(패턴 제작: 최해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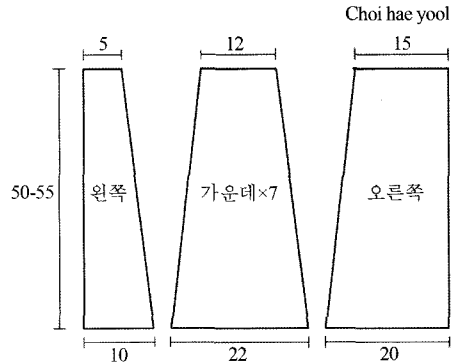


<그림 23> <복요: 조선 초·중기 귀부인>의 장옷 패턴(패턴 제작: 최해울)

미비한 점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개선점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시제품의 직물 재료를 모두 위와 같이 사용할 경우 예상보다 단가가 높아지므로, 완제품을 출시할 때에는 일반 소비자의 경제사정에 맞고 의상의 맵시도 해치지 않는 저렴하고 질 좋은 직물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V. <복요: 조선 초·중기 귀부인>의 도식화 패턴

<그림 22>~<그림 24>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발된 <복요: 조선 초중기 귀부인>의 기본 패턴으로, 당저고리, 장옷, 치마로 구성되었다. 비슷한 신장의 인형일지라도 제작사에 따라 각 부위의 세세한 사이즈 차이가 존재하여 세부치수는 약간씩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큰 부위의 치수 위주로 명기하였다. 이는 입체적인 모델 체형을 가진 구체관절인형의 신체 특징을 고려한 기본 패턴이며, 좀더 동양적인 신체를 가진 인형용 의상을 제작한다면 출토품 치수를 더욱 충실히 따라 치수를 조정할 수 있다.



<그림 24> <복요: 조선 초·중기 귀부인>의 치마 패턴 (패턴 제작: 최해울)

VI. 결 론

본 연구는 구체관절인형 고증의상 완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새로운 사전 고증자료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 초·중기에 유행한 복요 현상을 응용한 시제품 및 구체관절인형의 신체 특성에 따른 기본 패턴 제작과 개선점 발견에 중점을 두었다.

구체관절인형 의상 시장은 일반인형에 비해 오너의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에 힘입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조선 초·중기 이전 시대를 다룬 고증 제품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기록과 유물로 미루어 보면 복요 유행은 15-16세기에 걸쳐 조선 초·중기의 양반가 뿐 아니라 수많은 여인들이 추종하던 중요한 복식문화 현상이었으나 아직 문화상품자료로는 중요시되지 않은 아이템이다. 따라서 이즈음 저변을 넓혀가는 구체관절인형 고전의상 시장과 관련된 연구대상으로 학술적, 미적인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는 당시에 생존했던 유명 여성캐릭터의 의상을 올바르게 구현하여 2차적인 영상문화상품을 만들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므로, 복요 현상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다룬 <복요: 조선 초·중기 귀부인(Bok-yo style: The Lady in Early middle Joseon)>의 시제품과 패턴 제작과정에서는, 고증의 의미와 미적 가치를 동시에 살리면서도 구체관절인형의 신체적 특징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당시의 양반가 복식유물 중 복요의 착장 방식을 보여 주거나 그와 형태가 비슷한 유물을 선택하여, 금선단을 도련에 넣은 당저고리에는 다이어트를 활용하고, 폭이 넓은 장옷에는 이중겉걸과 곱솔바느질이라는 특성을 강조했으며, 넓고 긴 치마에는 사다리꼴 재단 방법을 응용하였다. 또한 실물 유물과 흡사한 문양과 재질을 가졌으면서도 되도록 부드러운 직물을 택하여, 사이즈가 인체보다 작으면서도 인체와 가까운 포즈가 가능하며 비율상 신장이 길고 볼륨이 있는 구체관절인형 의상에 적합한 실루엣이 나타나도록 고려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대형 구체관절인형에 복요 복장이 입혀졌을 때의 대략적인 이미지와 재료 및 완제품 제작 시에 세부치수 수정이 가능한 기본 패턴 자료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구체관절인형의 체형이 동양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입체적이어서, 맞춤새를 위해서는 패턴에 약간의 응용을 가해야 한다는 점은 고증 정확도를 생각할 때 아쉬운 요소가 아닐 수 없다.

한편 15-16세기의 폭 좁은 직물을 사용한 유물의 이음선을 완제품에서 어느 정도 생략하는가에 대한 문제, 저렴하고 질 좋은 완제품을 위한 또다른 직물 선택과 적절한 가격 책정, 전신 착장을 완벽하게 갖추려는 일반소비자를 위한 속곳, 신발, 가제, 장신구 등

올바로 고증된 시판 부속물 단품이 아직 미비한 점은 개선점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결과물을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상 고증뿐만 아니라 인형 제작사, 장신구 제작사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기회가 닿는 대로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한다.

참고문헌

- 가발(Doll wig). (2002). *돌모아(Dollmore)*. 자료검색일 2008, 10. 20, 자료출처 <http://www.dollmore.com/shop/shopbrand.html?xcod=093&type=X&mcod=003>
- 구체관절 예복. (2006). *주방실인형한복(dollhanbok)*. 자료검색일 2008, 11. 21, 자료출처 <http://dollhanbok.com/zeroboard/zboard.php?id=gallery01>
- 구체관절 테마한복. (2006). *주방실인형한복(dollhanbok)*. 자료검색일 2008, 11. 21, 자료출처 <http://dollhanbok.com/zeroboard/zboard.php?id=gallery01>
- 국역 조선왕조실록. (2004). *KoreaA2Z 동방미디어 한국학대이터베이스연구소* 자료검색일 2009, 1. 21, 자료출처 <http://www.koreaA2z.com/sil99/index.html>.
- 권수현, 강순제. (2008). 구체관절인형의 고구려 복식 재현.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28(1), 109-126.
- 권영숙, 이주영. (1995). 조선 초·중기 여자 장의(長衣) 제도-임란전후 홀트유물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가정대학연구보고*, 21, 121-179.
- 김연자. (2005). 평산 신씨 묘 출토복식 고찰. *문경새재박물관 (편)*, *금선단치마 입고 어딜 다녀오셨을까* (pp. 77-121). 서울: 민속원.
- 김한결. (2003). 4백 30년전 애달픈 사연담은 과평 윤씨母子 미라. *과학동아*, 12, 94-100.
- 서거정. (1488). *국역 사가집* 2. 임정기 옮김 (2004).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시니어 델프. (2003). *루츠(Luts)*. 자료검색일 2008, 10. 25, 자료출처 <http://doll.luts.co.kr/FrontStore/iGoodsList.phtml?iCategoryId=215>.
- 심연옥. (2006). 세조(世祖)대의 회장저고리. *문화재청 (편)*,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복식자수 편* (pp. 214-217). 대전: 금강인쇄사.
- 안태현. (2005). 문경 연소리 출토 평산 신씨 미라의 가계. *문경새재박물관 (편)*, *금선단 치마 입고 어딜 다녀오셨을까* (pp. 63-75). 서울: 민속원.
- 의상. (2003). *루츠(Luts)*. 자료검색일 2008, 10. 25, 자료출처 <http://doll.luts.co.kr/FrontStore/iGoodsList.phtml?iCategoryId=215>.
- 의상(Doll clothes). (2002). *돌모아(Dollmore)*. 자료검색일 2008, 10. 20, 자료출처 <http://www.dollmore.com/shop/shopbrand.html?xcod=095&type=X>

- 이은주. (2000a). 長髯 鄭氏(1565-1614)墓의 출토복식과 기타 유물. 안동대학교박물관 (편), *안동대학교박물관 총서 15, 포항 내단리 장기 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p. 25-68). 안동: 안동대학교박물관.
- 이은주. (2000b). 장기 정씨 묘 출토유물. 안동대학교박물관 (편), *안동대학교박물관 총서 15, 포항 내단리 장기 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p. 117-162). 안동: 안동대학교박물관.
- 이은주. (2006). 김덕령 장군 의복. 문화재청 (편),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복식지수 편* (pp. 282-285). 대전: 금강인쇄사.
- 이정섭. (2002). 문중 유물의 성격과 특징-경북 북부지방의 전적과 고문서를 중심으로-. 한국국학진흥원 (편), *선비, 그 멋과 삶의 세계* (pp. 150-160). 서울: 대성당 인쇄사.
- 정미경. (2005). 평산 신씨 묘 출토복식의 구성법에 관한 연구. 문경새재박물관 (편), *금선단 치마 입고 어딜 다녀 오셨을까* (pp. 123-181). 서울: 민속원.
- 정미경, 서수영. (2005). 평산 신씨 묘 출토복식-화보. 문경새재박물관 (편), *금선단 치마 입고 어딜 다녀 오셨을까* (pp. 13-49). 서울: 민속원.
- 주몽과 소서노예요. (2006, 12. 23). *NEWSIS*. 자료검색일 2009, 3. 1, 자료출처 <http://www.newsis.com/>
- 최경희. (2006). *조선 중기 기녀복식에 관한 연구-진주 '논개'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해율. (2008). 16세기 조선 기녀의 일반 연회(宴會) 규정복식 고증 디자인 연구-문화콘텐츠용 이미지 작업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2(8), 1322-1331.
- 한광순. (2006). 16세기 후반 청주 한씨 회장저고리와 솜장옷.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 (편), *석주선박사 추모 10주년 우리옷 선별기: 조선시대 우리옷의 멋과 유행* (p. 12). 서울: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
- 한국국학진흥원 (편). (2002). *선비, 그 멋과 삶의 세계*. 서울: 대성당인쇄사.
- 호조낭관계회도. (1550). 국립중앙박물관. 자료검색일 2008, 3. 1, 자료출처 <http://www.museum.go.kr/kor>
- 희경루방회도. (1567). 동국대학교박물관 동국대 770. 자료검색일 2009, 4. 1, 자료출처 <http://www.emuseum.go.kr/pages/portal/search/full.jsp?dbNoArr=3&docNo=00134452>
- Dae Jang Geum(大長今). (2006). *Jigamaree/Kosaf*. 자료검색일 2008, 11. 21, 자료출처 <http://www.jigamaree.com/>.
- D.O.T. (2003). *드림오브돌(Dream of doll)*. 자료검색일 2008, 10. 25, 자료출처 <http://www.dreamofdoll.com/>.
- DRESS. (2003). *드림오브돌(Dream of doll)*. 자료검색일 2008, 10. 25, 자료출처 <http://www.dreamofdoll.com/>.
- Model Doll. (2007). *돌모아(Dollmore)*. 자료검색일 2008, 10. 20, 자료출처 <http://www.dollmore.com/shop/shopbrand.html?xcode=082&type=X&mcode=036>
- SD한복-정한. (2007). *돌모아(Dollmore)*. 자료검색일 2008, 10. 20, 자료출처 <http://www.dollmore.com/shop/shopdetail.html?brandcode=095012000042&search=&sort=order>